

103

자동차 부품 선반 작업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(혼합성 난청)

성별	남	나이	35세	직종	선반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권○○(35세, 남)은 1994년 8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S사에 입사하여 2000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금형을 선반으로 깎아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. S사에 입사하여 2~3년 후부터 청각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.

2 작업환경

권○○이 근무한 선반 공정의 소음 노출정도는 90dBA를 초과하고 있었고 권○○의 개인 노출평가에서는 94.4dBA를 나타냈다.

3 의학적 소견

2000년 4월 연구원에서 권○○에 대해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. 이경 검사에서 우측 고막이 천공되었고 좌측 고막은 약간 견착되었다. 순음청력검사는 농 수준의 양측성의 혼합성난청(우측 3분법상 103dBHL, 좌측 3분법상 65dBHL) 소견을 보였다. 권○○는 198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양측의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5급 장애관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



4 결 론

권○○의 청각장애는

- ① 과거 만성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고 고막천공이 있으나
- ②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
- ③ 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는 혼합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므로
소음 작업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